

【논 문】

## 14~17세기 약탈과 교역을 통해 본 여진경제

김 윤 순\*

### ■ 차 례 ■

1. 머리말
2. 여진의 약탈경제
3. 주변국과의 교역과 교역소 설치
4. 마시의 발전과 교역의 확대
5. 맺음말

### 국문초록

14세기 滿洲를 무대로 활동한 여진족은 수렵·어로·채집활동이 주요 경제 형태였다. 그러나 이러한 생활방식만으로는 자급자족은 물론 지속적인 생산력의 발전 역시 기대할 수 없었다. 이후 생산력을 발전시키기 위해 농업과 교역, 약탈 등이 여진사회에 중요한 경제 단위가 되었다. 14세기 이후 여진사회는 농경사회로의 진입이 이루어졌으나 이를 위한 노동력의 확보는 약탈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렇듯 농업 생산력의 증대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던 약탈은 그 비중에 비해 연구가 미비하다. 명 초기 약탈은 소규모의 간헐적인 형태로 발생하였기 때문에 여진인의 경제적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한계가 있었다. 그래서 대량으로 그리고 공식적인 방법으로 물품 확보를 할 수 있었던 교역의 형태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국제 정세의 변화로 교역이 단절되거나 시장이 폐쇄되는 경우에는 약탈활동을 통해 물품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다. 약탈과 교역은 상호 보완적으로 여진 내부에 필요한 물품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제 형태였다. 이에 여진의 성장과 후금 건국의

www.kci.go.kr

\* 강원대 사학과 박사과정

배경에는 여러 가지 관점이 있으나 본고에서는 수렵·채집이라는 생산방식의 한계를 보완하면서 여진사회의 성장 동력이 되었던 여진인의 약탈과 교역활동에 초점을 맞춰 접근해 보고자 하였다.

여진인은 생필품이 항상 부족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명과 조선에 생필품을 요구하거나 교역을 통해 생필품을 얻고자 하였으며, 한편으로는 명과 조선의 변경지역을 약탈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여진 추장들은 생필품, 인축 등 이용가치가 있는 것들을 약탈의 주요 대상으로 삼아 재부를 축적하거나 생산 활동에 이용하였다. 명과 조선의 변경지역이 여진인의 약탈로 피해가 심각해지자 정벌, 교역 중단 등의 지구책을 내놓지만 이것은 오히려 여진족을 자극하여 약탈의 빌미를 제공하게 되었다. 즉 명과 조선에게 여진족의 약탈은 자신들의 영토와 백성을 피폐하게 하는 파괴적인 행동이었지만 여진족에게는 생계를 유지하게 함은 물론 재부를 축적하고 노동력을 획득할 수 있는 경제활동 중 하나였던 것이다.

여진경제의 발전은 처음부터 빠르게 진행된 것은 아니었다. 농경사회로 진입하기 전 단계에서 여진과 주변국과의 교역은 많지 않았다. 그러나 이후 여진사회가 농경사회로 진입하면서 농우, 농기구 등의 생산도구와 노동력의 확보가 필요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주변국과의 교역횟수와 교역량도 증가하게 되었다. 게다가 여진의 특산물인 초피, 인삼 등의 수요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이들 품목이 상품으로서의 가치를 지니게 되면서 조공무역과 더불어 명의 마시무역, 조선의 변경무역이 성행하게 되었다. 명 후기에는 마시의 발전으로 시장이 확대되고 상품의 종류도 다양화 되었으며 교역 인원도 늘어나면서 상업이 점차 발전하게 되었다.

여진의 성장은 여진사회 내의 여러 상황과 약탈을 통한 노동력의 획득, 교역을 통한 생산도구의 확보, 그리고 약탈과 교역활동을 통한 재부의 축적이 서로 맞물려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이것은 이후 여러 여진 부락을 통합하고 마침내는 후금을 건국한 누르하치라는 강력한 인물을 등장시키는데도 영향을 미쳤다.

주제어 : 여진, 약탈, 노예, 교역, 마시

## 1. 머리말

14세기 여진<sup>1)</sup>의 생산방식은 수렵·어로·채집 활동이 주를 이루었다. 그

러나 이러한 생활방식만으로는 생산력을 높여 잉여생산물을 축적하고, 상업을 발전시키는 등의 여진사회 내부를 성장시키는데 한계가 있었다. 게다가 명초 여진족은 강력한 세력을 형성하지 못하고 각지에 부락 단위로 흩어져 살고 있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한계 상황에서 여진족이 어떻게 어려움을 극복하며 성장해 나갈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

14~17세기 여진의 성장은 주로 군사적 측면이나 주변국인 명과 조선의 변경 방어력 약화 등의 관점에서 설명되어 왔다. 하지만 이것과 더불어 성장의 기본 요소가 되는 경제상에서의 연구는 좀 더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여진사회에 있어 약탈과 교역은 물자를 확보하기 위한 적극적인 방법이었다. 약탈은 농업 생산력 증대에 필요한 노동력을 확보하는 주요 통로였다. 그러나 14세기 초 약탈은 소규모의 간헐적인 형태로 발생하여 약탈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물자의 품목과 규모가 제한적이었다. 때문에 여진사회에서 생산되는 특산물로 명·조선과 교역을 하여 정기적으로 대량의 필요한 물자를 확보하려는 시도가 나타나게 된다. 시장의 폐쇄 등으로 교역이 단절되어 물자의 확보에 곤란을 겪게 되면 이를 타개하기 위해 약탈활동이 일어났다. 약탈과 교역은 여진사회에 필요한 물자를 상호보완적으로 확보하는 여진경제에 있어 대외 통로 역할을 한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여진사회의 대외통로로서 여진 성장에 커다란 공헌을 한 약탈·교역활동을 중심으로 그 활동의 원인과 전개과정을 살펴봄으로써 경제적 측면에서 여진의 성장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명대 여진경제에 대해서는 여진 각 부락의 개별적 경제생활이나<sup>2)</sup> 여진사회 발전의 하나의 흐름으로 다루어져왔고,<sup>3)</sup> 여진의 경제를 시기, 항목별로

1) 명의 사료에 여진은 거주 지역에 따라 建州女眞, 海西女眞, 野人女眞으로 구분하였는데 조선의 사료에 의하면 土着女眞·兀良哈·斡朵里·兀狄哈로 나누어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구분은 생활양식과 그 종족에 의하여 구분한 듯하다(金九鎮, 1988, 『13C~17C 女眞 社會의 研究 - 金 滅亡 以後 清 建國 以前까지 女眞社會의 組織을 中心으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7쪽).

2) 金九鎮, 1976, 「骨看 兀狄哈 女眞 研究」, 『史叢』 20; 董玉瑛, 1980, 「明代海西女眞의 經濟生活」, 『社會科學戰線』 4期; 于曉光, 1987, 「明代尼麻車, 都骨兀狄哈部族社會經濟形態考察」, 『北方文物』, 4期.

나누어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여진사회의 성장을 살펴본 연구도 있다.<sup>4)</sup> 또한 여진 성장의 중요한 동력이 되었던 교역에 대해서는 명과 진행했던 조공 무역과 마시무역 각각의 전개와 발전과정을 검토하고 무역이 여진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를 연구하거나<sup>5)</sup> 여진의 물산을 중심으로 여진사회의 발전을 탐구한 연구가 있다.<sup>6)</sup> 교역의 또 다른 통로였던 조선에 대해서는 조선과 여진 양자 간의 변경무역을 다룬 연구가 있다.<sup>7)</sup>

이러한 연구 성과들은 교역의 확대를 중심에 두고 여진 경제를 이해하려는 경향이 강하였다. 그러나 여진 경제는 교역이외에도 약탈, 농경, 수렵·채집이라는 경제 구조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이른바 다원적 경제 형태로 나타나게 되고 이러한 경제 형태가 지속되면서 여진 경제가 성장했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즉 수렵·채집·어로의 경제활동을 주요 생업으로 삼고 있는 여진족에게서 생산되는 초피, 인삼 등의 특산물을 명·조선의 물품과 교역하면서, 여진내부의 상품경제 확대는 물론 수렵·채집이라는 기존의

- 
- 3) 周遠廉, 1981, 『清朝開國史研究』, 遼寧人民; 楊陽, 1991, 『中國的東北社會-14~17世紀』, 遼寧人民出版社; 趙鐸, 1992, 『清開國經濟發展史』, 遼寧人民出版社; 陸紹箴, 1998, 『滿族發展史初編』, 天津古籍出版社.
- 4) 王文郁, 1982, 「地理環境與明代女眞族社會經濟的特点」 『南開史學』 2期; 李鴻彬, 1984, 「明代女眞鐵業發展簡述」 『民族研究』, 5期; 樂凡, 1997, 『明代女眞族的多元經濟研究』, 東北師範大學博士學位論文; 樂凡·項福庫, 2000, 「明代女眞族的農耕經濟狀況初議」 『黑龍江民族叢刊』 1期; 曹文奇, 楊秀, 2002, 「女真人與鐵器」 『滿族研究』 2期; 남익현, 2012, 「多元의 經濟構造를 통해 본 女眞社會의 特徵」 『인문과학연구』 35,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 5) 內田直作, 1935, 「明代의 朝貢貿易制度」 『支那研究』 37輯; 蔣秀松, 1984, 「明代女眞의 勅貢制」 『民族研究』 第4期; 金九鎮, 1994, 「明代 女眞의 中國에 대한 公貿易과 私貿易」 『東洋史學研究』 48, 동양사학회; 李璜, 2010, 「明代女眞朝貢政策研究」, 中央民族大學 碩士學位論文; 田靜, 1960, 「明代遼東의 馬市貿易」 『史學月刊』 6期; 楊余練, 1980, 「明代後期の遼東馬市與女眞族의 興起」 『民族研究』 5期; 樂凡, 2000, 「明代女眞族의 貿易關係網及社會效應」 『北方文物』 1期; 亨利·賽瑞斯·王苗苗 譯, 2010, 『明蒙關係Ⅲ-貿易關係:馬市(1400~1600)』, 中央民族大學出版社.
- 6) 河內良弘, 1971, 「明代東北アジア의 貂皮貿易」 『東洋史學研究』 30卷 1號; 文世哲, 1984, 「明代女眞幾種物產輸出述議」 『民族研究』 3期; 文世哲, 1984, 「明代女眞物產輸入幾種」 『黑龍江文物叢刊』 4期; 張炳旭, 2003, 「明代女真人商品經濟發展之軌述」 『滿族研究』 第3期.
- 7) 李仁榮, 1954, 『韓國滿洲關係史의 研究』, 을유문화사; 李炫熙, 1982, 「對女眞貿易-對野人 交涉政策의 背景」 『韓國史論』 11-朝鮮前期의 商工業, 國사편찬위원회; 文鍾哲, 1995, 「淺談明代女眞族與朝鮮人之間的邊境貿易」 『延邊大學學報』 3期; 王臻, 2002, 「明代女眞族의 朝鮮의 邊境貿易考述」 『延邊大學學報』 1期; 刁書仁, 2007, 「明代女眞與朝鮮의 貿易」 『史學集刊』 5期. 김순남, 2011, 「16세기 조선과 野人 사이의 모피교역의 전개」 『한국사연구』 152, 한국사연구회.

여진경제 활동도 지속될 수 있었음을 강조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비교적 많은 연구 성과가 있는 무역에 비해 약탈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미비한 실정이다. 약탈 경제에 대한 시론적 연구로는 樂凡의 「明代女眞族的掠奪經濟初探」이 있는데,<sup>8)</sup> 여진의 약탈경제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서술하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약탈경제의 구체적인 실상을 심화시켜 연구할 필요가 있다. 약탈에 대해서는 약탈을 통해 발생하는 노예를 다룬 연구들이 주를 이루는데, 명말청초의 사회성격과 그 추이를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다.<sup>9)</sup> 이를 통해 볼 때 약탈은 여진사회를 이해하는 중요한 키워드임에도 불구하고 연구 성과가 적다. 따라서 여진사회의 대외 통로로써 약탈의 전개과정과 양상을 교역과 더불어 살펴보는 일은 여진경제의 일면을 이해하는데 필요하다.

14~17세기 여진의 성장을 이해하는 연구는 주로 군사적, 사회적 측면에서 많이 다루어져 왔다. 경제적 측면을 살펴보았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명·조선과의 교역을 중심으로 여진사회 내의 생산력 증대와 상품경제 발전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가 이루어졌다. 주변국과의 관계에서 나타난 교역이외의 약탈활동에 대한 연구는 다만 간헐적으로 일어난 구득활동 내지는 군사 활동으로 치부되었을 뿐 경제활동의 한 부분으로 여겨지지 않았다. 하지만 여진사회가 성장할 수 있었던 데는 교역을 통한 생산도구의 획득과 약탈을 통한 노동력의 확보가 맞물려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따라서 명·조선과의 교역을 통해서도 얻을 수 없었던 생산도구를 획득하고 명과 조선의 백성을 사로잡아 부족한 노동력을 확보함으로써 생산력 증대에 영향을 주었던 약탈과 약탈활동으로는 충족할 수 없는 물자를 대량으로 확보 할 수 있었던 교역에 대해 함께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즉 교역과 약탈은 각각의 경제 형태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여진 경제의 한 부분으로써 이

8) 樂凡, 1997, 「明代女眞族的掠奪經濟初探」, 『北方民族』 第4期.

9) 徐正欽, 1993, 「明末清初 建州女眞社會의 奴隸經濟」, 『安東大學 論文集』 15; 韓世明, 「滿族入關前奴隸問題管窺」, 『遼寧師範大學學報』, 2004年 2期.

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약탈과 교역에 대한 기존의 연구 성과를 참고하여 2장에서는 약탈의 원인과 활동상황 등 약탈의 형태를 분석해보고 약탈이 어떠한 형태로 작용하여 여진사회에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볼 것이다. 3장에서는 주변국과의 조공무역과 더불어 상호 간 필요에 의해 성립된 마시가 어떻게 운영되면서 교역이 이루어졌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마시가 발전하고 교역이 확대되면서 여진 경제에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와 이를 바탕으로 변화해가는 여진사회의 일면을 살펴볼 것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연구가 시론적으로나마 약탈과 교역이라는 경제 형태를 중심으로 14~17세기 여진의 성장을 경제적 시각으로 바라봄으로써 후금의 건국, 나아가 그 이후의 여진 사회 성질을 이해하는데도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 2. 여진의 약탈경제

여진이 명과 조선의 변경지역을 약탈한 것은 생필품, 人畜의 획득에 있었다. 자급자족이 어려웠던 여진사회에서는 명과 조선과의 교역에 의존하는 비중이 컸다. 그러나 조공과 마시, 혹은 무역소를 통한 교역으로 그들이 필요로 하는 생필품을 얻기 어려웠을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했고 이것은 곧 약탈활동으로 나타났다. 여진족은 남하한 이후, 농경사회로 진입하고자 하였는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노동력과 생산도구의 확보였다. 당시 노략한 한인 노비가 조선으로 도망가는 일은 여진사회에서 문제가 되었다. 그러나 조선이 한인 노비를 즉각 요동으로 송환시키자 여진인은 원망과 분노를 품게 되었고, 인구의 약탈을 통해 보상받으려고 하였다.<sup>10)</sup> 게다가 노략한 노비는 전매되어 여진사회에서 재산의 일부가

10) 朴元燾, 1992, 『宣德年間(1425~1435) 明과 朝鮮間의 建州女眞』 『아세아연구』 35,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142~144쪽.

되었기 때문에 재부를 축적하기 위한 약탈이 행해졌을 것으로 생각된다. 앞서 말한 것은 약탈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외에도 명과 조선에 있어 변경 방어의 허술함 역시 약탈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하는 부차적인 요소가 되었다. 실제로 야인이 조선의 사람을 약탈해 매매할 경우 일체 법으로 다스린다고 하였는데, 법을 만든 후에 법을 위반한 여진인이 매우 많았으나 법에 따라 처벌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고 여전히 약탈과 매매가 계속해서 행해졌다는 것은 이를 증명하는 것이라 하겠다.<sup>11)</sup>

여진의 침탈을 방어하기 위한 명과 조선의 군사적 자구책에도 불구하고 여진의 침입은 끊임없이 일어났다. 명이 조선보다 3~4배 이상 무단히 침입을 받았던 것을 보면, 명의 요동지역은 조선의 변경지역보다 피해규모가 더 컸던 것으로 보인다.<sup>12)</sup> 명의 약탈규모는 당시 조선에서 요동도사로 송환하는 인구의 수를 통해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조선에서 요동도사로 송환한 한인의 수는 37,908명이었다.<sup>13)</sup> 그러나 사로잡혀간 이후 여진사회에서 생산 활동에 동원되어 송환되지 못한 한인의 수가 더 많이 존재했을 것으로 보이며, 단지 사람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마, 철제 농기구, 재물 등의 약탈도 있었음을 볼 때 그 피해는 상당한 규모였을 것으로 보인다.

15세기 중엽 여진족의 약탈은 더욱 빈번하게 일어나 성화연간(1465~1487)부터 대거 창궐하여 1년 동안 침구해 온 것이 97차례나 되었고 죽이거나 사로잡아간 인구가 10만여 명에 이르렀다.<sup>14)</sup> 1460년(세조 6)의 기록을 보면,

#### <사료 1>

浪孛兒罕의 아들 阿比車가 3월 14일에 富寧지방에 몰래 들어와서 거기에 거주하던 백성 6명, 소 4두, 말 3필을 약탈해 갔습니다. 곧이어 15일에 경성지방에 들어와서 백성 9명, 소 36두, 말 3필을 약탈해 갔으며, 24일에도 경성지방에 들어와서 백성 2명을 연달아 약탈해 갔습니다.<sup>15)</sup>

11) 『中宗實錄』卷47, 18年 3月 丙午.

12) 金九鎮, 1994, 앞의 논문, 11쪽.

13) 金九鎮, 1988, 앞의 논문, 206~209쪽.

14) 『中宗實錄』卷100, 38年 1月 丁未.

라고 하였다. 이를 통해 볼 때 약탈은 여진족의 필요에 따라 산발적인 형태로 지속적으로 일어났으며,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에 걸쳐 백성과 소를 약탈한 것으로 보아 당시 毛憐衛가 이미 농경사회로의 진입이 이루어졌으며 농경에 필요한 노동력과 생산도구를 약탈로써 확보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당시 농경에 필요한 물자의 확보가 교역을 통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상황임을 고려했을 때, 여진족에게 있어 필요한 물자를 확보하는 방법으로써의 약탈활동은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 규모가 작을 때는 백성 2명, 소 4필 등 비교적 소규모였으나 약탈의 피해 규모가 클 때는 수십, 수백의 인축이 약탈당하기도 하였다.

여진족은 적을 때는 몇 명이 약탈을 진행할 때도 있었고 많을 때는 수십, 수백 명, 심지어는 1천 명 이상이 약탈에 가담한 사례도 있다.<sup>16)</sup> 또 각 부락이 단독으로 약탈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어떤 때는 한 개의 부락이 다른 부락에 군사를 청하거나<sup>17)</sup> 몇 개의 부락이 연합하여 약탈하기도 하였다.<sup>18)</sup> 군사를 청할 때는 대가가 필요했는데, 손상된 것은 몇 배로 배상해야 했다. 예를 들어 사람 1명은 10명으로, 말 1필은 10필로 배상하도록 했다.<sup>19)</sup> 이외에 다른 부락의 말을 샅을 주고 빌려 약탈하기도 하였다.<sup>20)</sup>

16세기 후반 이후에도 여진족의 약탈은 계속되었다. 명·조선과의 교역이 중단되었을 경우 여진 경제는 곤경에 빠지게 되었고,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갖은 방법으로 교역의 재개를 요구하거나 약탈을 할 수밖에 없었다. 천명(1616~1626)·천총연간(1626~1636) 30여 차례의 약탈이 있었는데 이는 여진족의 약탈활동이 여전히 자행되고 있었음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sup>21)</sup> 여진은 50명 또는 100여 명 이상이 떼를 지어 몰려와 국경을

15) 『世祖實錄』 卷19, 6年 3月 丁亥.

16) 『成宗實錄』 卷122, 11年 10月 辛酉.

17) 『成宗實錄』 卷120, 11年 8月 乙丑.

18) 『世宗實錄』 卷92, 23年 1月 丙午.

19) 『成宗實錄』 卷57卷, 6年 7月 癸丑.

20) 『成宗實錄』 卷256, 22年 8月 己巳.

21) 樂凡, 1997, 앞의 논문, 92쪽.

횡행하며 인축과 재물을 약탈해대서 조선변경의 한 지역은空地가 될 정도였다고 한다.<sup>22)</sup> 이렇게 빈번한 약탈로 피해가 심각해지자 명과 조선은 여진을 정벌하여 상황을 해결하려 하였으나 여진은 그 당시에만 복종하는 체했을 뿐 약탈의 행위는 계속되었다. 여진의 약탈행위가 명과 조선의 정벌로 인해 잠시 소강상태에 있다가도 곧 계속해서 자행된 것을 보면 여진에게 있어 약탈은 정복, 정벌이라는 군사적인 의미보다도 수렵의 다른 형태로써의 경제활동으로 여겼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여진족은 명과 조선의 변경지역을 약탈한 것 외에도 여진 각 부락 간에 상호 약탈도 존재했다. 훈춘에 사는 올랑합이 이전에 兀末車 올적합을 공격하여 처자와 우마를 약탈하였다가 쇠환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는 올적합이 올랑합을 공격하여 인축을 약탈하여 갔으니 이를 쇠환하도록 청하고 있는 기록을 보았을 때,<sup>23)</sup> 약탈의 형태가 명과 조선에 대한 일방적인 약탈 이외에 여진 부락 간의 상호 약탈도 존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부락 간의 상호약탈 사례는 사료를 통해 많이 찾아 볼 수 있다.<sup>24)</sup>

그렇다면 이렇게 지속적이고 집단적인 약탈을 주도했던 행위자는 누구였을까? 그들은 주로 명이나 조선으로부터 관직을 제수 받은 여진 수령들과 만주 목단강, 흑룡강 등지에 살던 야인여진의 추장들이었다. 그들은 명·조선에 대해 때로는 복종하는 체하면서 조공하다가 때로는 생필품 획득과 복수 등을 이유로 약탈하면서 자신들의 욕구를 채우고자 하였다. 영락연간에 약탈을 주도했던 여진 추장은 猛哥帖木兒와 楊木答兀, 金文乃 등이다. 김문내 등 야인들은 처음에는 경원 요새 아래에서 소금·철·우마 등을 무역하였는데, 명이 건주위를 세우 於虛出(아합출)을 지휘로 삼아 야인을 초유하면서 조선이 경원에서의 교역을 중단하자 이에 격분하여 경원 등지에 들어와 약탈하였다.<sup>25)</sup> 맹가첩목아도 모련의 遺種과 결탁하여 보병·기병 150여 명

22) 『仁祖實錄』 卷15, 5年 3月 丙子.

23) 『世祖實錄』 卷30, 9年 1月 癸巳.

24) 『世祖實錄』 卷34, 10年 12月 丙申; 『成宗實錄』 卷36, 4年 11月 辛亥 등.

25) 『太宗實錄』 卷11, 6年 2月 己卯.

으로 경원 雍丘站을 침략하였고, 남녀 22명, 말 10필, 소 8두를 죽이고 노략해 갔다.<sup>26)</sup> 양목답울은 변경에 침략해 군인과 민간 부녀 및 변경의 백성들을 노략질하여 종으로 삼아 부렸으며,<sup>27)</sup> 약탈한 인구를 전매하여 우마와 의복 등의 생활도구로 교환하였다.<sup>28)</sup> 양목답울이 사로잡은 중국 사람을 전후에 解送한 것이 거의 1천여 명에 이르렀다는 사실은 그가 얼마나 자주 반복적으로 약탈을 자행해왔는지를 보여준다.<sup>29)</sup>

정통연간부터는 주로 凡察, 李滿住, 董山 등의 여진 추장들에 의해 약탈이 일어났다. 鎮守遼東總兵 등의 보고에 의하면, ‘개원과 심양 등지에, 達賊이 국경에 들어와서 인축을 약탈하고 무순 천호소의 성지를 공격 포위했는데, 적은 건주·해서의 야인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었다. 여진 추장 이만주와 범찰·동산라탑이 北虜의 꺾박을 당하여 1만 5천 여의 인마를 거느리고서 침범하였다’고 하였다.<sup>30)</sup> 이외에 葉赫部の 祝孔革도 변경을 침입하여 약탈한 여진 추장 중 한 명이었다.

만력연간에 이르러서는 홀라온 울적합과 누르하치 등의 약탈이 두드러졌다. 홀라온의 무리는 원래 小酋로서 무리가 1만 미만이었다. 그들이 약탈한 뒤에 남은 것은 ‘衙舍·倉廩와 민가 5호뿐이었고, 창고의 곡식은 거의 없어지고 군기는 화살촉 한 개도 남지 않았으며, 성의 네 문은 모조리 부서졌다’고 하였다.<sup>31)</sup> 그리고 누르하치의 군대 수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본부의 정예병이 거의 1만여 명에 가깝고 그들이 약탈한 홀라온 울적합의 기졸까지 헤아려 본다면 상당한 무리를 이루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sup>32)</sup> 그들 무리가 침범한 곳에서는 인축, 재물이 모조리 약탈당하였다.<sup>33)</sup> 이는 명 후기에 이

26) 『太宗實錄』 卷19, 10年 4月 辛丑.

27) 『世宗實錄』 卷60, 15年 4月 乙酉.

28) 王冬芳·李明明, 2009, 『女眞-滿族建國研究』, 學苑出版社, 315쪽.

29) 『文宗實錄』 卷12, 2年 3月 庚戌.

30) 『文宗實錄』 卷3, 卽位年 8月 甲戌.

31) 『宣祖實錄』 卷186, 38年 4月 壬子.

32) 『光海君日記』 卷79, 6年 6月 丙午.

33) 『光海君日記』 卷127, 10年 閏4月 庚午.

르러 만주 諸種女眞의 통일 과정에서 인축, 재물, 군사가 한 무리에 집중되면서 약탈의 규모와 범위도 점차 확대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약탈은 대내외적 상황과 약탈의 목적에 따라 지속적으로 발생했지만 주로 봄, 여름에 농사를 짓는 시기에 농민들이 들에 흠어져 있을 때나 가을, 겨울에 곡물을 수확할 즈음 약탈이 빈번하게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조선왕조실록』에 의하면, ‘2월부터 4월 10일 이전까지는 적의 말이 파리하여 감히 도적질할 수가 없으니, 4월 10일 이후에서 5월 20일 이전까지와 8월 20일 이후에서 11월 10일 이전까지만 군사를 정돈하여 굳게 지킨다면 적을 제어할 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한 점을 통해 이를 짐작할 수 있다.<sup>34)</sup> 이는 지리환경적인 영향과 함께 약탈의 주요 대상이 되었던 곡물과 인축을 약탈하기에 비교적 용이한 시기였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된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약탈의 대상이 되었던 것은 주로 생필품과 인축이었다. 그러나 이후 농경생활로 접어들면서 미곡, 포물 등의 생필품 보다는 점차 농우, 사람, 농기구 등의 약탈 비중이 증가되었다. 이외에도 말, 활, 화살, 병기, 철물 등도 약탈의 대상이 되었다.<sup>35)</sup> 소는 식용, 운송수단뿐만 아니라 농업의 생산도구로 사용되었으며, 약탈한 인구는 농업, 수렵·채집 생산에 투입하여 일하도록 하거나 군사로도 이용할 수 있었다. 또 약탈한 인구는 농우, 생산도구 등으로 교환할 수 있는 쇠환의 도구로도 사용되었다. 이를 통해 약탈품들은 여진사회에서 중요한 재산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명과 조선에서 약탈한 약탈품의 수치는 대부분 명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약탈이 여진족의 생활에서 자주 발생하는 상황임을 고려해 보았을 때 약탈품의 수치도 적지 않은 양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여진족은 주로 들에 나와 농사를 짓는 농민이나 군졸, 부녀자, 젊은 남녀

34) 『世宗實錄』卷75, 18年 11月 壬辰.

35) 『世宗實錄』卷61, 15年 閏8月 壬申; 『世祖實錄』卷25, 7年, 9月, 癸亥; 『成宗實錄』卷49, 5年 辛巳.

를 약탈하였다. 특히 많은 농민이 약탈당하자 조선 조정에서는 농민을 보호하기 위해 농사짓는 곳에 군사를 배치하고 농민들이 들에 나가는 것도 관리하였다.<sup>36)</sup> 위의 약탈대상은 공통적으로 여진사회에 노동력을 제공하였다. 이 가운데 여진족이 농민을 약탈한 경우는 농경에 투입하기 위한 노동력의 확보 외에도 선진 농경기술과 그것을 바탕으로 한 농업에 대한 경험 역시 함께 확보하려 한 것임을 짐작케 한다. 여진족은 농민뿐만 아니라 농업 생산도구에 대한 약탈도 계속해서 자행하였다. 15세기 중반부터 농업 생산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던 여진사회는 교역을 통해 농우, 철제 농기구의 수입을 원했다. 그러나 조공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양은 한계가 있었고, 명·조선이 철기 반출에 대한 금령을 선포하고 농우, 철제 농기구의 교역량과 횡수도 제한하면서 밀무역이나 약탈의 형태로 여진사회에 들어올 수밖에 없었다. 여진인은 수십 명 무리를 지어 조선의 변경을 넘어와 농기구와 소를 빼앗았는데,<sup>37)</sup> 성종조의 기록에서 울적합의 집에 조선의 농기구가 많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보면,<sup>38)</sup> 조선의 농기구가 지속적으로 여진사회로 유입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후에도 여진 각 부락은 명의 요동지역과 조선의 변경지역에 대한 약탈을 이어갔고 여전히 인축이 주요 약탈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누르하치 흥기 시기에는 인삼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누르하치가 삼을 캐는 호인 100여 명을 내보내 채삼활동을 벌이거나<sup>39)</sup> 조선 경내에까지 불법적으로 침탈하여 멋대로 인삼을 채취하였다.<sup>40)</sup> 이는 당시 인삼이 여진사회의 재부를 축적할 수 있는 상품으로서 가치를 인정받았기 때문이며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여진인들의 불법적인 채삼활동에 대해 조선은 경제 방법과 대응책에 고심하고 있었다.

이렇게 약탈이 지속적으로 일어난 것은 약탈대상의 이용가치가 여진경제

36) 『成宗實錄』 卷255, 22年 7月 壬午.

37) 『成宗實錄』 卷278, 24年 閏5月 丙申.

38) 『成宗實錄』 卷276, 24年 4月 丁未.

39) 『宣祖實錄』 卷189, 38年 7月 丙子.

40) 『宣祖實錄』 卷177, 37年 8月 甲辰.

에 많은 도움을 주었기 때문이었다. 소는 농업의 생산도구로써 중요한 의의가 있다. ‘兵은 農에 의지하고 農은 반드시 소가 있어야 되니, 소는 진실로 兵農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sup>41)</sup>이라는 말은 당시 농경에 가장 기본적인 생산도구로서 소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농경사회로 진입하여 농업생산력의 증대를 꾀하고자 했던 여진인은 명과 조선으로부터의 소를 약탈하였던 것이다.

철기는 농업 생산도구, 병기, 생활도구 등 생산경제의 모든 부분과 연계되어 있다. 게다가 나무, 뼈, 돌 등으로 만든 도구와 비교해서 견고함이 뛰어났기 때문에 생산효율을 높이고 농경지의 확대에까지 영향을 주었다. 때문에 철기는 여진인의 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생산도구로 인식되었고 철기를 얻기 위해서 상사물로 요청하거나 교역소를 통해 구입하기도 하였으나, 명과 조선이 지속적으로 철기에 대한 금령을 시행하면서 약탈과 밀무역을 통해 철기를 구할 수밖에 없었다. 주로 철제 농기구를 약탈하여 농업생산에 직접 이용하거나 그것을 녹여 화살촉과 갑옷, 무기 등으로 개조하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명과 조선으로부터 약탈한 사람들은 여진사회에서 어떻게 이용되었을까? 다음의 사료를 통해 약탈된 사람들의 모습을 대략 살펴볼 수 있다.

#### <사료 2>

“중국 여자 三之·莫只是 야인에게 사로잡혀서 柳尙冬哈에게 轉賣되었다가 도망쳐 鐘城에 왔는데, 유상동합이 와서 말하기를, ‘내가 우마로써 노비를 구입하였으니, 만약 돌려보내지 않으면 몸소 쟁기를 잡아야 할 것이 틀림없으니, 빌건대 돌려주소서.’라고 하였습니다.”<sup>42)</sup>

#### <사료 3>

達生이 아뢰기를, “적이 신에게 날마다 나무를 베어 지고 오게 해서 손과 발이 모두 찢어져 피가 흘렀습니다. 신이 부르짖으면서 우니 적이 朴丹用阿의 딸아이를 불러 내가 부르짖으면서 우는 이유를 물었습니다. 신이 그 까

41) 『中宗實錄』 卷21, 9年 10月 壬寅.

42) 『世祖實錄』 卷45, 14年 3月 壬戌.

닭을 자세히 말하니 박단용어의 딸아이가 적에게 알렸습니다. 적이 말하기를, ‘누가 너로 하여금 앉아서 음식을 소비하도록 했느냐? 이와 같이 하면 장차 죽일 것이다.’ 하므로, 신이 두려워서 감히 다시 말하지 못했습니다.”<sup>43)</sup>

이 사료를 통해 약탈된 사람들은 여진사회에서 노예로 이용되었는데, 농경에 동원됨은 물론 나무를 베어오는 등의 잡역을 담당하고 있었고, 노동의 정도가 심해 조선으로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sup>44)</sup> 즉 약탈한 인구는 여진사회에서 노예로 매매되거나 使役, 家奴, 農耕, 家居 등의 노동에 이용되었다. 노예는 씨족성원과는 달리 당시의 칙서나 우마 등과 마찬가지로 재부의 일부로 인정되고 있었다.<sup>45)</sup> 노예는 그 외에도 군대를 따라 전쟁에 나가거나 牧馬를 하거나 園藝노동 등에 종사하고 있는 사실도 보인다.<sup>46)</sup> 또한 철 제련기술이 낮아 ‘쇠를 불릴 줄 모르고, 다만 正鐵을 얻어서 개조할 뿐이었던’<sup>47)</sup> 여진사회에 冶匠이 있었던 것을 보면,<sup>48)</sup> 뛰어난 철기 제조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야장을 약탈해가서 철기를 제조하는데 이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의 기록이기는 하나 1601년(선조 34)의 기록을 보면 실제로도 철기 제조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장인들을 약탈해 가서 철기 제조와 철물 생산에 이용했음을 알 수 있다.<sup>49)</sup>

사로잡힌 사람들은 노예가 된 이후 노예주의 가정에 재산이 되었으며 전매의 대상이 되었다. 여진족은 사로잡은 사람을 奇貨로 삼아서 이리저리 사고팔아서 후한 이익을 얻었는데,<sup>50)</sup> 노예의 가격은 노동력의 정도에 따라 달랐지만 우마 20여두 정도에 상당하였다.<sup>51)</sup> 당시 여진사회에서는 비싼 가격

43) 『成宗實錄』 卷255, 22年 7月 丁亥.

44) 『世宗實錄』 卷87, 21年 10月 壬午; 『世祖實錄』 卷21, 6年 8月 壬戌.

45) 徐正欽, 1993, 앞의 논문, 19쪽.

46) 徐正欽, 1993, 앞의 논문, 27쪽.

47) 『成宗實錄』 卷52, 6年 2月 辛巳.

48) 『成宗實錄』 卷52, 6年 2月 戊申.

49) 『宣祖實錄』 卷134, 34年 2月 己丑.

50) 『燕山君日記』 卷17, 2年 8月 乙亥.

51) 『成宗實錄』 卷250, 22年 2月 甲子.

으로 노예가 매매되어 기회만 있으면 약탈하려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후 수많은 정복전쟁으로 노예 가격은 점차 하락하였고 마침내 명말청초에 가면, 전쟁으로 인하여 명과 조선의 포로가 대량으로 발생하자 노예 가격은 은 10여량 정도, 또는 농우 1마리 값에 지나지 않게 되었다.

또 평상시에 여진인은 사로잡은 사람들을 스스로 쇠환하면서 곁으로는 정성을 바치는 듯이 하고 속으로는 후한 상을 바랐다. 그래서 예전부터 약탈하였거나 조선에서 도망간 사람을 스스로 쇠환하여 상을 바라니, 상이 후할수록 약탈이 늘어나 아침에 약탈했다가 저녁에 되돌려 줄 것이라고 말할 정도였다.<sup>52)</sup> 이를 통해 볼 때 여진족은 약탈한 인구를 쇠환의 도구로 이용하여 자신들의 재부를 축적하려 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야인들이 쇠환으로 얻은 것은 무엇이었을까? 다음의 사료를 살펴보자.

#### <사료 4>

영안도 경차관 김영정이 치계하기를,

“신이 경원에 있을 때, 南訥 兀狄哈 時童介가 來謁하였는데, 신이 부사 金坤과 함께 약탈해간 사람의 이름과 수를 묻고 쇠환하도록 명하니, 시동개가 대답하기를, ‘그 때 한 사람은 쏘아 죽였고 한 사람은 약탈해 갔는데, 만약 잡혀간 사람을 쇠환하고자 한다면, 소 30두, 말 1필, 갑옷 1, 가마솔 10, 농기구 10부, 호미 10개, 도끼 10개, 낫쇠 밭그릇 5개, 낫쇠 병 5개를 나에게 주신다면 마땅히 이로써 사가지고 오겠습니다.’ 하므로, 신들이 반복해서 타일러도 시동개는 끝내 말을 바꾸지 않았습니다.”<sup>53)</sup>

위 사료를 보면, 사로잡아 간 사람들을 쇠환하는데 우마, 갑옷 등의 무기와 농기구 및 일용잡물을 노비의 값으로 계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외에도 중국사람 솜품將과 그 처자, 총 3명을 중국에 송환하는데 骨看에게 正布 20필, 綿布 4필, 소금 3석을 주었다.<sup>54)</sup> 쇠환은 여진사회에 필요한 물품을

52) 『宣祖實錄』 卷21, 20年 11月 丙午.

53) 『成宗實錄』 卷282, 24年 9月 丁未.

제공해주었기 때문에 여진인들은 사로잡혀 간 사람들을 조선에 되파는 일도 서슴지 않고 행했다.<sup>55)</sup>

당시 여진사회에서 약탈혼은 보편적인 사회현상으로,<sup>56)</sup> 약탈된 부녀는 여진인의 처첩이 되기도 하였다. 올랑합·알타리 등이 올적합의 사람을 사로잡아서 아내로 삼았고,<sup>57)</sup> 요동 동녕위 사람 那邊이 건주위 아인 茲化에게 사로 잡혀가 여종이 되어 심부름을 하고 있으면서 딸 하나를 낳았다는 기록은 이를 증명한다.<sup>58)</sup>

여진 경제는 다양한 경제 형태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여진사회를 지탱하는 다원적 구조였기 때문에 약탈경제가 여진사회에 미친 영향을 다른 경제 형태들과 명확히 구분하여 설명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상술한 약탈의 활동상황이나 양상을 통해서 약탈이 노동력 확보에 중요한 통로였음을 확인하였다. 약탈을 통한 노동력의 확보는 당시 농업 인구의 증가로 연결되었다. 당시 여진지역의 인구수는 많지 않아서 농경에 종사할 수 있는 농업인구의 수도 적었다. 그러나 인구를 약탈해 점차 여진사회에서 농업인구의 수를 증가시켰고, 이들이 농지를 개간하고 농작물을 생산하면서 농경사회로의 발전에 일조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인구의 약탈을 통해 노동력 확보 외에 선진 농업기술이나 철기 제조기술도 함께 전해지면서 생산력의 증대에도 기여했다. 결국 약탈은 농경사회로 나아가는 교두보 역할을 한 것이다.

또 상술한 바와 같이 여진족은 약탈한 인구를 노예로 삼아 전매하거나 쇠환의 대가를 바라고 인구를 약탈했는데, 이는 재부를 축적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재부의 축적은 교역을 통해서도 이루어졌는데, 약탈과 교역을 통해 축적한 재부를 바탕으로 여진사회에서는 사유 재산이 발생하게 되고 유력자가 등장하게 된다. 이것은 나아가 가정 형태의 변화와 계급사회의 등장이

54) 『世宗實錄』卷113, 28年 8月 辛丑.

55) 金九鎭, 1988, 앞의 논문, 198쪽.

56) 韓世明, 2006, 『明代女真家庭形態研究』, 中國社會科學出版社, 62쪽.

57) 『世祖實錄』卷16, 5年 6月 丙寅.

58) 『成宗實錄』卷113, 11年 正月 戊子.

라는 사회 변화를 초래하는 원인이 된다.

여진족의 약탈은 생계를 유지하고 생산도구, 노동력, 재물 등을 획득하기 위한 가장 빠른 경제활동 중 하나였다. 수렵·어로·채집을 주요 생업으로 하는 경제단계에서 생필품 부족과 농경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필요한 노동력 부족은 여진사회에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여진과 경계를 접하고 있는 명·조선을 약탈하거나 때로는 다른 여진 부락을 약탈해 필요한 재물과 노동력을 획득하는 것이었다. 명·조선의 입장에서는 여진족의 약탈이 자신들의 영토와 백성을 피폐하게 하는 파괴적인 행동이었지만 여진족의 입장에서는 생필품과 재물, 생산도구, 노동력 등을 획득하기 위한 경제활동 중 하나였다. 또한 약탈은 여진인이 명과 조선의 선진적인 농경문화를 빈번하게 접촉하도록 하여 농업생산으로의 발전을 돕기도 하였다. 때문에 여진사회에 있어서 약탈은 수렵·어로를 주요 생업으로 하는 종족이 사회를 발전시키기 위해 취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여진인들이 필요한 물자를 확보하는 방법은 약탈 뿐만 아니라 교역을 통해서도 이루어졌는데, 두 경제 형태는 상호보완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조선왕조실록』에서 東北面都巡問使 朴信이 태종에게 올린 글을 보면, 鏡城과 慶源지역에 무역소를 설치해 互市하게 하여 여진인들이 소금과 철을 얻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변경의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sup>59)</sup> 또 해서, 건주여진의 여러 부가 애양을 침략하였는데, 명이 마시 교역을 제한하여 남자는 보습과 삼이 없고, 여자는 바늘과 가위가 없을 정도였기 때문에 침구한 것이 그 원인이라 하였다.<sup>60)</sup> 이후 성화 14년(1478) 일부 중단됐던 명과 여진의 마시 교역이 다시 재개되었다.<sup>61)</sup> 여기에서 보면, 여진인들은 필요한 물자를 확보하지 못했을 때 명과 조선의 변경에 침략하여

59) 『太宗實錄』 卷11, 6年 5月 己亥.

60) 『明憲宗實錄』 卷172, 成化 13年 11月 己丑.

61) 『明憲宗實錄』 卷176, 成化 14年 3月 丙戌.

약탈해 갔으며, 명과 조선은 여진인의 변경 침략과 이를 통한 약탈을 막기 위해 한 방편으로서 교역을 허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약탈경제와 함께 교역의 전개와 영향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 3. 주변국과의 교역과 교역소 설치

여진사회는 조선 변경 일대로 남하한 이후, 수렵·채집이라는 경제활동의 영위와 더불어 농경사회로의 진입을 꾀하였다. 그러나 당시 여진사회는 여전히 농경활동이 전반적인 경제구조에서 주도적인 지위를 차지하지 못하고, 기존 생산방식만으로 농업생산력을 향상시키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 여진사회가 농업사회로 진입하고자 하는 목적은 안정적인 경제활동과 물질의 추구에 있었다. 이는 여진인이 농업생산력을 증대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로 나타났다. 그 중 약탈은 일부 필요한 물자와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었으나 정기적으로 대량의 물자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물자를 확보하기 위한 다른 방법으로써 교역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당시 명과 여진의 교역은 조공과 회사라는 조공무역의 형태로 이루어졌다. 명은 이를 통해 여진을 통제하려고 하였고, 여진은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한 기회로 삼았다. 그러나 무역의 기회는 명에 입조하여 칙서를 받은 여진의 대소 추장에게만 주어졌다. 때문에 칙서를 차지하기 위한 여진 각 부락의 칙서 쟁탈이 치열하게 전개되었다.<sup>62)</sup>

조공을 통해 획득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 때문에 각 여진 부락은 적극적으로 명에 조공하였다. 특히 15세기 초기에 입조가 많았는데, 이것은 영락 시기 만주경략의 결과로 여진지역에 수많은 위·소를 설치한 직후이기 때문이라 생각되며, 해서·야인여진은 건주여진보다 2배 이상 많이 조공하였

62) 칙서 쟁탈에 관한 내용은 金九鎭, 1993, 앞의 논문, 213~215쪽; 叢佩遠, 1986, 『明代女眞的勅書之爭』 『文史』 總第26輯, 中華書局 참고.

다.<sup>63)</sup>

여진이 명에 조공한 물품에서 가장 주된 것은 말이었으나 『대명회전』에는 이외에도 貂鼠皮, 舍利孫皮(土豹皮), 海青, 兔鷲, 黃鷹, 阿膠, 水角(海象牙)이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조공 품목에는 없는 진주, 인삼 등의 진현이 이루어진 것을 보면 규정된 물품 외에도 여진지역에서 나는 다른 생산품도 진상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들 조공품은 대부분이 여진사회에서 수렵·어로·채집활동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었다. 이에 명은 조공의 대가로 상사물을 지급하였는데, 상사물은 여진이 조공한 물품보다 후하게 쳐주었다.<sup>64)</sup> 여진이 받은 상사물은 采緞, 折鈔絹, 紵絲衣, 靴, 韃 등으로 채단과 견직물이 주를 이루었으며 관직의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되었다.

명과 여진의 조공무역은 대내외적 상황과 결부되어 시기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인다. 전기는 영락 초년부터 선덕 말년까지로 명이 대대적으로 여진을 초무하고 조공을 장려하던 시기, 중기는 선덕 말년에서 가정 초년까지 명이 여진의 초무에 점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며 조공의 횡수와 인원, 시기 등에 제한을 가하고, 이에 여진 각 부는 명의 제한을 풀기 위해 여러 시도를 한 시기, 후기는 가정 초년부터 만력 46년(1618)까지 명이 건주, 해서의 칙서와 공물의 액수 등을 명확히 한정하고, 칙서의 정치적, 경제적 가치가 증대되면서 칙서의 쟁탈이 격화된 시기이다.<sup>65)</sup> 이러한 조공무역은 여진이 명과 접촉하며 필요로 하는 물품을 하사받고 명의 정세를 파악하여 상황에 맞게 대처해 나가면서 여진사회를 발전시키는데 중요한 배경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조공체제를 바탕으로 한 동아시아 질서 속에서 여진은 조선에도 입조하여 토산물을 바치고 관직을 받거나 회사품을 받았다. 이것은 표면적으로는 복종하는 척 하면서 실제적으로 교역을 통해 명과 조선 모두에게서 경제적

63) 金九鎮, 1994, 앞의 논문, 14~15쪽.

64) 『明太宗實錄』 卷144, 永樂 11年 冬10月 己巳; 『明太宗實錄』 卷144, 永樂 11年 冬10月 甲戌.

65) 蔣秀松, 1984, 앞의 논문, 17쪽.

이익을 얻고자 했던 여진의 생존전략이었다. 변경의 안정은 물론 명에 대한 견제를 위해서도 여진인을 초무할 필요가 있었던 조선은 여진의 입조를 허락하였고, 명과 마찬가지로 경성, 경원의 변경에 무역소를 설치하여 여진과 교역을 시행했다.<sup>66)</sup>

여진이 조선에 조공한 토산물에 대해서는 상세한 기록이 없으나 초서피의 유행, 皮物을 획득하기 위한 변경의 백성들과 상인들의 불법적인 교역에 관한 기록을 보면, 주로 초서피 등의 피물을 진상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조선의 회사품은 水鐵羅鍋·環刀·狄磨箭·鞍具馬, 궁시, 술, 고기, 쌀, 신발, 각 종 종이류 등 다양하였다. 명과 조선의 회사품에는 면포와 수공업제품의 비율이 높는데 이는 당시 여진사회에서 면포와 수공업제품의 수요가 있었음을 짐작케 하는 것이다.

영락연간의 대여진관계는 몽골 잔여세력과 연합하여 명에 잠재적 위협이 될 수 있는 여진 세력을 통제하는데 있었다. 이를 위해 명은 외교적 교섭과 더불어 정기적인 무역시장인 馬市를 설치하여 여진세력을 회유하고자 하였다. 명은 여진인이 빈번하게 명의 변경을 침략하여 약탈하는 원인이 경제적 인 것에 있다고 파악하여 이를 충족시킴으로써 변경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sup>67)</sup> 명의 입장에서도 만주경략과 몽골친정 등의 적극적인 북방정책의 수행을 위한 군마의 획득이 필요했고 여진지역에서 생산되는 초피, 인삼 등의 토산물을 쌀, 소금 등과 교환하는 등의 경제적 필요에 의해서도 마시무역의 성립이 필요했다.

명은 홍무연간에 이미 올랑합과 말을 교역하였다.<sup>68)</sup> 이후 말을 교역하고

66) 무역소의 존속에 대해 李仁榮은, 경원의 무역소가 정식설치로부터 4년을 지나 태종 10년 이르러 경원부의 鏡城移治와 함께 자연 사라지고 경성의 무역소만이 존속되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여진인이 조선 근경에 거주하면서 조선과의 경제적 교섭은 결코 단절되지 않고, 비공식적으로 무역소와 같은 것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李仁榮, 1954, 『韓國滿洲關係史의 研究』, 을유문화사, 41~42쪽). 『中宗實錄』 卷1, 1年 9月 甲辰의 기록을 보면 실제로 조선 근경에 살던 여러 여진 부락이 조선과 여진 내지의 교역에서 중간 역할을 한 사례가 보인다.

67) 『皇明四夷考』 上, 「女眞」; 李化龍, 『明經世文編』 卷422, 「議復開市撫賞疏」.

68) 叢佩遠, 2006, 『中國東北史』 卷4, 吉林文史出版社, 1122쪽.

자 하는 사람들이 증가하자 영락 4년(1406) 3월 開原에 2곳, 廣寧에 1곳, 총 3곳에 해서여진과 올랑합 3위를 위한 교역소가 마련되었다.<sup>69)</sup> 이후 천순 8년(1464) 撫順 등지에서 건주여진을 위한 교역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고,<sup>70)</sup> 만력시기에 이르면 清河, 寬奠, 靈陽 등지에도 교역소가 설치되었다.

마시는 공인된 무역이었기 때문에 명 조정이나 요동지방의 倭官들이 마시를 관리하였고, 개설 시기나 물화의 가격 책정, 稅收, 撫賞 등이 규정되어 있었다. 마시는 개원에서는 매월 초 1일부터 초 5일까지 1차례, 광녕에서는 초 1일부터 초 5일까지와 16일부터 21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개시가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었다.<sup>71)</sup> 그러나 이러한 원칙은 초기에는 엄격하게 지켜지다가 교역량이 증가하고 시장이 확대되면서 규정과 상관없이 개시가 진행되기도 하였다.

군마가 필요했던 명은 많은 수의 말을 마시에서 수입하였는데, 말의 가격은 상황과 시기의 변화에 따라 조정되어 처음에는 견·포로만 지불하다가 후에는 미곡과 함께 지불하였다. 마시에서는 매매의 多寡에 따라 稅銀 數目を 抽分하도록 규정하였다.<sup>72)</sup> 징수한 세은은 조공하거나 매매하러 오는 여진인 도둑과 도지휘, 또는 夷人의 사정을 전보한 이인의 무상 비용으로 충당되었다.<sup>73)</sup> 세의 비율이 대체로 5~10%임을 감안한다면 추분 총액을 통해 당시 마시의 교역량을 어느 정도 추측할 수 있다.<sup>74)</sup>

마시에서 명은 주로 직물류와 양식 등을 여진의 가축류, 모피류, 인삼 등의 수렵·채집물과 상호 교환하였다. 다만 말, 철기 등의 군수물자의 매매

69) 『全遼志』卷1, 山川志 關梁.

70) 『明憲宗實錄』卷4, 天順 8年 夏4月 乙未.

71) 『遼東志』卷3, 邊略 馬市.

72) 『全遼志』卷2, 賦役志 馬市抽分.

73) 『遼東志』卷3, 邊略 馬市.

74) 물화의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환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나 교역량의 증감, 여진인의 경제적 이익의 증가를 이해하는 데는 도움을 준다. 그리고 추분의 세율은 1443년 『遼東志』와 1537년 『全遼志』 및 1584년 『明代遼東檔案』을 비교했을 때, 말의 세율은 90%, 소의 세율은 25~50%, 조피의 세율은 25%, 鍋의 세율은 200%, 襪子의 세율은 300%정도 증가했다(叢佩遠, 2006, 앞의 책, 1133쪽). 여진족의 주요 수출입 품목의 세율이 크게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으며, 추분 세율의 증가는 교역량의 확대를 보여준다.

는 금지되었고, 노구슬, 가래 등의 도구 역시 3년에 한 번씩만 구매하도록 제한하였다.<sup>75)</sup>

마시 설치 이후 정통연간을 기점으로 마시는 새로운 발전단계로 접어드는데 그 중요한 특징이 민시무역의 확대이다.<sup>76)</sup> 초기 마시무역의 중심이었던 말의 무역은 이 시기에 비록 감소하지만 모피류, 채집물, 농기구 등 다른 물품의 교역량은 점점 증가한다.<sup>77)</sup> 명 후기에 이르면 교역소는 더욱 확대되어 교역량과 교역횟수가 크게 증가하고 상품의 종류도 다양해진다. 이 때 마시는 더 이상 생필품을 획득하기 위한 공간이 아니라 부를 축적하고 세력을 확장하며, 여진사회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공간이었다.

여진은 명·조선과의 무역에서 초피, 말, 인삼 등을 수출하고 철기, 농우, 농기구, 소금, 포물 등을 수입하였다. 그러나 변경의 안정을 우려한 관리들의 상소로 철기와 농우의 반출을 제한하거나 금하는 금령을 여러 차례 선포하고 위반하는 자를 엄격하게 처벌하고자 하였다.<sup>78)</sup> 하지만 그 이후에도 여전히 여진지역으로 철기와 농우가 유출되었다.

여진사회로 수입되는 조선의 물품은 주로 여진과 조선의 경계에 살고 있던 城底野人들에 의해 교역되었으며 철기, 농우와 같이 반출이 제한되거나 금지된 물품에 대해서는 밀무역이 이루어졌다. 농경사회로의 발전을 이루려던 여진사회에 농우, 철제 농기구의 수입은 절실하였으나 주변국에서 이들 물품의 반출을 제한하고 금하면서 밀무역을 통해 얻을 수밖에 없었다. 철기, 농우 등 교역이 제한되거나 금지된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 여진인이 명·조선의 변경민, 상인 등과 진행한 교역은 명과 조선의 변경에 많은 폐단을 야기시켰다.

75) 『明孝宗實錄』 卷195, 弘治 16年 正月 甲午.

76) 林延濤, 1983, 앞의 논문, 51쪽.

77) 이 시기는 명의 대내외적인 위기로 교역을 제한하거나 마시를 폐쇄하는 등의 복잡한 양상도 보인다. 그러나 교역을 통한 상호 경제적 연계가 명초부터 이어져 발전하고 있는 상태였고, 여진에게 마시는 포기할 수 없는 경제생활의 일부였기 때문에 발전의 양상은 지속되었다고 생각된다.

78) 『世祖實錄』 卷31, 9年 8月 甲午.

여진은 이러한 수렵·채집활동을 통해 얻은 특산물을 주변국과 교역하면서 생필품은 물론 농업에 필요한 생산도구와 선진 농업기술까지 획득할 수 있었다. 명과 조선에서 수입한 소, 철기, 수공업품 중 일부는 농업 생산에 이용되어 한 단계 발전된 농업 생산단계로의 진입을 촉진하였고, 일부는 무기 제조에 이용되어 병기의 질을 높여 군의 전투력을 증대시켰다. 또 미곡, 면포, 단자 등의 수입은 여진족의 생활수준을 제고시켰다. 발달정도가 다른 여진 각 부락들 사이에서는 피물과 쌀의 교역이 이루어지는 등 여진 부락 간의 상호 교역도 촉진시켰다.<sup>79)</sup>

#### 4. 마시의 발전과 교역의 확대

영락시기 교역의 중심이 되었던 것은 말이었다. 그러나 수렵·채집경제에서 농경사회로 변화하는 과도기적 상태에 놓여 있었던 여진사회는 농업 생산도구로서 소를 필요로 하게 되었다. 소는 여진지역에서도 생산되었으나 그 양이 매우 적어 농지를 개간하고 경작하기 위해 필요한 농우는 명과 조선으로부터 수입할 수밖에 없었다.

정통 7년(1442) 2월 명조가 범찰에게 내린 칙서를 보면, 兀乞納 등 15인에게 관직을 내리고 부족한 소, 농기구 등을 이전과 같이 무역하는 것을 허락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sup>80)</sup> 또한 『조선왕조실록』에는 여진인에게 농우·농기구·군량과 마초·의복을 준 사례가 다수 기록되어 있다.<sup>81)</sup>

그러나 조공을 통해 획득한 상사물로 소를 얻는 방법이 있었기 때문에 여진은 15세기 초부터 무역을 통해 소를 수입하려는 모습이 많이 보인다. 정통 4년(1439)에 달자, 해서여진이 彩幣 혹은 駑馬로 농우와 동, 철

79) 『成宗實錄』 卷255, 22年 7月 丁亥.

80) 『明英宗實錄』 卷89, 正統 7年 2月 甲辰.

81) 『世宗實錄』 卷20, 5年 6月 癸酉.

기 그릇을 교역한 기록이나<sup>82)</sup> 정통 6년(1441) ‘해서 등처의 아인여진이 매년 시장에 와서 말로써 소로 바꾸길 원하는 기록은<sup>83)</sup> 여진인이 조공무역의 한 계로 인한 소의 부족분을 마시를 통해 채워나가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하겠다.

또 무순마시에서도 매년 소를 교역하였는데 무상으로 받는 것도 대부분 소였다.<sup>84)</sup> 해서여진이 광순관과 진북관을 통해 가정 28년(1549)과 29년(1550)에 수입한 소는 473마였고 만력 11년(1583) 7월에서 12년(1584) 3월까지 수입한 소는 546마였다.<sup>85)</sup> 명대 후기에 이르면 요동의 마시를 통해 소를 대량으로 구입하였는데 명이 말을 구입하는 대신 여진이 소를 대량으로 구입해갔으므로, 마시가 여진의 우시로 변할 정도였다고 하였다.<sup>86)</sup> 이것은 생산과 생활방식이 농경생활로 변화되던 시기의 여진사회가 더욱 많은 수의 소를 필요로 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소의 대규모 유입은 여진사회에서 농경의 발전을 상징하는 것이었다. 여진인이 명으로부터 수입한 소의 수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지속적으로 여진사회에 유입되었다는 것은 여진사회의 변화상을 통해 유추해낼 수 있다. 토지의 개간 정도가 증대되고 농경을 통해 얻은 곡물을 섭취하며, 여진지역에서 포의 생산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여진사회에서 농경은 점차 주도적인 지위를 점하고 있었고 그 동력이 되는 소가 충분히 사용되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sup>87)</sup>

철기의 보급은 여진사회의 생산력 수준을 제고하고 여진사회 발전을 이 해하는 키워드라고 할 수 있다. 명대 여진지역에서 야철업은 비교적 늦게 발전하기 시작했고, 이 때문에 야철업 및 철기 제조가 발달한 명과 조선으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명은 정치적으로 여진을 통제하기

82) 『明英宗實錄』 卷54, 正統 4年 夏4月 己丑.

83) 『明英宗實錄』 卷83, 正統 6年 9月 丙辰.

84) 文世哲, 1984, 앞의 논문, 32쪽.

85) 楊余綽, 1980, 앞의 논문, 附表 1:2 참조.

86) 金九鏞, 앞의 논문, 1994, 12쪽.

87) 王冬芳·季明明, 2009, 앞의 책, 242쪽.

위한 기미정책의 일환으로 소량의 철기 구입을 허락하였다.<sup>88)</sup> 그러나 이후 철기의 반출이 여진의 경제적, 군사적 발전에 도움을 주고 결과적으로 명에게 위협이 된다고 인식하게 되자 여진지역으로 철기, 특히 철제 병기의 반출을 엄격히 금지하는 금령을 선포하였다.<sup>89)</sup> 조선에서도 여진으로의 수출을 금지하고 여러 차례 금령을 반포하였다.<sup>90)</sup>

철기 수출을 금지하는 명과 조선의 금령이 지속적으로 반포되면서 여진의 철기 수급은 안정적이지 못했고 이는 곧 생산도구 확보의 어려움으로 나타났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여진은 흘러온 지방에서 나는 철을 사들이거나<sup>91)</sup> 주변국과의 밀무역, 약탈, 제한된 범위 내에서의 철제 농기구 수입을 통해 확보한 철기를 이용하여 생산도구나 무기로 개조하여 사용하였다.

『명대요동당안』을 보면 마시에서는 가래 등의 철제 농기구와 쇠술 등의 생활도구만이 교역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철기의 반출 금지가 철제 병기에 더욱 엄격하게 적용되었으며, 철제 농기구와 생활도구만이 제한된 범위 내에서 교역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 가정 28년에서 29년까지 해서여진이 광순관과 진북관에서 구입한 쇠술은 37口였고 가래는 275件이었다. 만력 11년(1583) 7월에서 12년(1584) 3월까지 해서여진이 구입한 쇠술은 252口, 가래는 4848件으로 증가했다.<sup>92)</sup> 여진은 적지 않은 양의 철제 농기구와 생활도구를 마시로부터 수입하고 있었다. 이렇게 수입된 철제 농기구는 일부는 농업 생산에 이용되었고 일부는 무기, 갑옷 등으로 개조되어 군사력을 증강하는데 이용하였다.<sup>93)</sup>

이와 더불어 명과 조선에서 약탈한 야장들로 부터 철기 제조기술이 전수되면서 여진사회에서도 철기 제조업이 발달하게 되어 울적함 부락에서도 風爐를 설치하여 화살을 만들고 여러 번의 담금질을 거쳐 견고한 화살촉을

88) 張德玉, 1994, 앞의 논문, 65쪽.

89) 『明英宗實錄』卷54, 正統 4年 夏4月 己丑.

90) 『世宗實錄』卷59, 15年 3月 乙亥.

91) 『成宗實錄』卷159, 14年 10月 戊寅.

92) 楊余純, 1980, 앞의 논문, 附表 1·2 참조.

93) 『明孝宗實錄』卷195, 弘治 16年 正月 甲午.

만드는 수준에까지 이르게 되었다.<sup>94)</sup> 이러한 기술은 이후 여진이 채광, 제련기술의 발전을 가져왔고 여진사회 도약에 한 축이 되었다.

상술한 바와 같이 여진사회는 마시를 통해 생산도구를 확보하고 약탈과 아울러 선진 기술을 도입하면서 농업생산력의 증대가 이루어졌다. 이외에도 여진사회는 시장이 확대되고 교역량이 증가하면서 상품경제의 확대와 상업의 발전이라는 사회 성장 동력이 만들어 지게 된다.

여진사회의 상품경제의 확대는 마시의 발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마시의 발전 형태를 통해 상품경제의 확대 상황을 살펴 볼 수 있다. 마시의 발전형태 ① 시장의 확대, ② 상품의 다양화와 교역량의 증가, ③ 입시 인원의 증가이다. 마시의 발전형태가 상품경제의 확대에 각각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명초 명은 개원과 광녕, 무순에 시장을 개설하였고 이후 청하, 애양, 관전에 시장을 증설하였다. 이러한 시장의 확대는 교역량의 증가를 수반하는 것으로써 시장의 확대는 곧 여진과의 교역이 확대되었음을 의미하여 보다 많은 상품의 교역이 이루어졌음을 방증하는 것이라 하겠다.

두 번째는, 명초 말과 생필품의 교역으로 단순화 할 수 있었던 것이 마시의 발전에 따라 수출품은 말 이외 여러 가축류, 초피 등의 모피류, 인삼 등의 채집물류로 다양화되었다. 수입품 역시 쌀, 소금 등의 생활용품 외에 보습, 삼 등의 농기구, 견직물 등 여러 종류가 수입되었고 그 교역량도 증가하였다. 실제로 『명대요동당안』을 보면 가정 28~29년까지 교역한 초피의 수량은 31장, 만력 11년 7월부터 12년 3월까지의 교역한 초피의 수량은 4928장으로 약 160배 증가 하였다. 쇠술은 약 7배, 가래는 약 20배로 증가하였다.<sup>95)</sup>

94) 『成宗實錄』 卷255, 22年 7月 丁亥.

95) 다만 인삼의 교역은 같은 기간 851圓(10圓=1斤) 67.5斤으로 감소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이 시기의 단편적인 현상으로 보인다. 이 시기에는 계속해서 인삼의 불법 약탈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많은 사람을 동원해 인삼을 채취하고 있는 기록을 보았을 때, 인삼의 수요와 인삼의 경제적 이익은 계속해서 증가 추세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명말 궁정 사료인 劉若愚의 『酌中志』에 따르면 당시 명 궁정에서 매년 초피 1만여 장과 狐皮 6만 여 장이 필요했음을 알 수 있는데 그 중 대부분은 요동마시로부터 구입한 것이었다.<sup>96)</sup> 명조 각 성의 수요량을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궁정에서 필요로 하는 양 보다는 많았을 것이므로 그 교역량은 상당한 규모였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마시는 관이 주도하는 무역에서 점차 민간이 주도적인 지위를 점하게 되는 변화과정 속에서 상품은 다양화되고 교역량도 증대되었는데 이것은 여진사회의 상품경제의 발전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세 번째로 입시 인원의 증가라는 측면에서 살펴보자. 『명대요동당안』에는 여진 상인과 한인 상인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는데, 여진 상인은 이름뿐만 아니라 함께 입시한 인원수도 기록되어 있다. 여진 상인의 규모는 가정 28~29년을 예로 들면 많게는 620~709명, 적게는 31~44명이었다. 그러나 만력 11년 7월부터 12년 3월까지 입시한 인원은 많으면 950~1100명에 달했고 적어도 200명이 입시하였다.<sup>97)</sup> <표 1>는 가정 29년(1550), 만력 6년(1578)·12년(1584) 개원과 무순의 마시에 입시한 여진인의 수와 추분 총액이다.

<표 1> 가정 29, 만력 6·12년 개원·무순마시의 입시인원과 추분 총액<sup>98)</sup>

馬市  교역소		시기	嘉靖 29년	萬曆6년 4-7월	萬曆 12년 3월
		廣順關	입시횟수와 인원수	7次 1501명	
추분 총액	銀 51.66兩			銀 153.08兩	
鎮北關	입시횟수와 인원수	12次 1096명		9次 5547명	
	추분 총액	銀 90.98兩		銀 272.77兩	
撫順關	입시횟수와 인원수		21次 1765명		
	추분 총액		銀 90.77兩		

96) 袁閻琨 외 4인, 2004, 『清代前史』上卷, 沈陽出版社, 122~123쪽.

97) 楊余純, 1980, 앞의 논문, 附表 1·2 참조.

98) 叢佩遠, 2006, 앞의 책, 1135~1136쪽.

가정과 만력의 일부 시기이지만 입시인원과 교역과정에서 내는 세금인 추분의 액수가 증가한 것을 볼 때 교역량은 계속해서 증가 추세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명이 건주여진과 해서여진의 조공자 수를 해마다 각각 500명과 1000명으로 제한한 것을 고려하면, 약 1년 동안 매 차례에서 위와 같은 인원이 입시하였다는 것은 곧 상품경제의 확대도 진행되고 있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주목할 만한 것은 여진 상인의 수가 1인의 통솔 아래 수십 명, 수백 명씩 무리를 이루어 교역하였던 점이다. 여진 상인 가운데 歹答兒, 扯勞, 仰加奴 등은 수차례 출입하고 있는데 이들은 추장이나 또는 추장의 使送한 대리인이었을 가능성이 많으나, 장사를 전문으로 하던 상인이었음에는 틀림이 없다.<sup>99)</sup> 이처럼 대규모의 상인 무리가 활동한 점으로 보아 당시 여진사회는 명과 상당한 규모의 교역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이에 따라 여진의 상인 무리가 교역을 위해 가지고 오는 상품의 양도 동시에 증가하였을 것이다.

상품경제의 발전에 따라 여진 각 부락 중에 오로지 무역에 종사하는 상인, 상인단이 출현하였다. 그들은 대외무역에 종사했을 뿐만 아니라 여진 내부의 교역에도 종사하였다. 여진 각 부락을 통해 구입한 초피, 인삼 등의 토산물을 마시를 통해 판매하고, 마시에서 구입한 농업, 수공업 생산품을 여진지역에서 판매하여 큰 이익을 얻었다. 이러한 여진 상인은 여진 각 부락 간의 연계를 발전시켰고 여진 내부시장의 발전과 상품경제의 발전을 촉진하였다.<sup>100)</sup> 모련과 건주에서 나지 않은 초피를 흑룡강 북쪽이나 심처 울적함과 교역하여 구입한다는 기록이나 피물로써 쌀을 교역한다는 기록은 이를 증명하고 있다.<sup>101)</sup> 자연환경의 영향으로 각각의 서로 다른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는 여진 부락은 필요한 물품을 서로 교역하게 되면서 자신들의 부락에서 생산되는 물품이 생필품을 넘어선 상품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점

99) 金九鎮, 1993, 앞의 논문, 222쪽.

100) 楊紹猷·莫俊卿, 2007, 『中國歷代民族史－明代民族史』, 社會科學文獻出版社, 101쪽.

101) 『明憲宗實錄』, 卷35, 成化 2年 冬10月 甲寅; 『成宗實錄』卷255, 22年 7月 丁亥.

을 점차 인식하게 되었다.

건주여진의 추장 王梟와 來力紅 등은 초피, 인삼, 松板을 매매하는 것이 이로울 것이라 여겼고,<sup>102)</sup> 누르하치의 상인 무리는 자주 여진 각 부락으로 갔는데, 일찍이 30명을 흑룡강에 파견하여 초피를 구입했다<sup>103)</sup>는 기록을 보면, 계속해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던 초피와 인삼을 상품으로 인식하여 교역을 통해 이익을 얻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모습은 다음의 성종 22년의 기록에서도 나타난다.

“匹段과 포물을 많이 저축하여 한 사람이 가진 초피와 鼠皮가 3백여 장에 이르렀으며, 닭이 처음 울면 비로소 일어나서 종일토록 쌀을 찿았습시다.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서 다른 종족의 울적함이 있었는데, 피물을 가지고 와서 쌀을 바꾸어 갔습시다. 그 사람들은 혹 2, 3일을 머물렀다가 2, 3바리를 싣고 돌아갔습시다.”<sup>104)</sup>

이 기록은 여진인에 잡혀갔다가 도망 나온 達生의 진술로, 달생이 머물렀던 여진인의 집은 중간상인의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여진인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초서피 3백여 장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초서피의 양을 상회하는 것이었다. 때문에 상대적으로 농업 생산이 발전하지 못한 울적합 부락에 쌀을 주고 피물을 획득하고, 이렇게 획득한 피물은 다른 부락이나 명·조선과의 무역을 통해 필요한 물자로 교환했던 것으로 보인다. 상품의 교환은 이미 오래 전부터 존재해 왔지만 상품의 가치를 인식하고 물품을 교환하는 무역형태로의 변화는 명대 여진사회에 상품경제의 확대를 가져왔던 것이다.

상품경제의 확대는 여진사회의 농업 발전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수렵·채집이라는 생산방식에서 농업 생산으로 점차 변화하는 과도기적 상태

102) 『萬曆武功錄』卷11, 「阿台, 阿海, 阿革, 來力紅傳」.

103) 『滿文老檔』上, 1990, 中華書局, 83쪽.

104) 『成宗實錄』卷255, 22年 7月 丁亥.

에 놓여 있던 여진사회는 농업 생산에 동력이 되는 농우와 보습, 삽, 호미 등의 생산도구가 필요했다. 여진인이 조선과의 교역에서 우마와 농기구가 아니면 교역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보면,<sup>105)</sup> 당시 여진사회에 농우와 철제 농기구의 수요가 급증했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여진지역에서 나는 토산물이나 말을 이용하여 명·조선의 농우, 농기구와 교역하게 되었고 이를 기반으로 여진사회의 농업이 발전하게 된다. 농경사회로 변화를 추구하던 여진인들의 욕구는 교역의 끊임없는 확대를 가져왔고 이에 따라 여진의 상품경제도 점차 발전하게 되었다.

교역이 상호간의 경제활동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상품경제의 확대는 명의 상황과도 연계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상술한 바와 같이 명은 초기에 변경방어를 위해 필요한 말을 여진과 교역하였다. 그런데 이후 관료들의 사치풍조의 유행으로 초피, 인삼, 매 등에 대한 수요가 끊임없이 증가하면서 이러한 물품들이 대규모로 명에 유입되었다. 따라서 초피와 인삼 등을 교역하여 이익을 얻기 위해 명의 내지 상인이 요동으로 와서 여진 상인과 서로 결합하면서 교역을 번영시켰고, 여진사회와 명 내지시장의 연계를 더욱 광범위하고 밀접하게 연결하였다. 『만주실록』에서 ‘산동, 산서, 하동, 하서, 탁주, 항주, 역주 등의 상인들이 무순성에 와 있었다’<sup>106)</sup>는 기록은 명의 내지 상인들이 요동을 왕래하고 있었으며 이것은 명 내지 시장과의 연계는 물론 상품 유통의 경로도 광범위했음을 방증하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후금 건국 이후에도 상인의 수가 증가한 것을 보면 여진의 상업은 여전히 발전하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상인의 증가는 명이 후금을 상대로 마시를 철폐하고 교역을 중단함으로써 받은 경제적 압박을 경감시키고 다양한 생활품을 여진에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명과의 교역이 단절된 대신 여진 상인들은 조선인들과 빈번하게 사무역을 진행하고자 하였다.<sup>107)</sup> 여진

105) 『成宗實錄』 卷228, 20년 5月 丁亥.

106) 崔鶴根 譯, 1992, 『國譯蒙文 滿洲實錄』 上卷, 保景文化社, 822~823쪽.

107) 『仁祖實錄』 卷26, 10年 3月 丙寅.

상인들은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는 인삼을 가지고 와서 매매하였고 후금 건국 이후에는 은으로 교역을 진행하였다.<sup>108)</sup> 이것은 여진의 무역경제가 물물교환에서 한 단계 더 발전된 형태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 5. 맺음말

14세기 여진은 기존에 영위하고 있던 생산방식으로는 자급자족은 물론 지속적인 생산력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명·조선과 접촉할 필요가 있었다. 명·조선과 접촉하는 대외통로는 약탈과 교역이라는 두 가지 형태가 있었다. 약탈은 여진사회가 농경사회로 진입하기 시작하면서 농경에 필요한 노동력과 물자를 확보하는 통로였고, 교역은 약탈로는 충족할 수 없는 물자를 대량으로 확보할 수 있는 또다른 통로였다. 또 여진사회가 교역의 단절로 물자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면 약탈은 다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통로가 되었다. 즉 약탈과 교역은 여진사회에 필요한 물자를 상호 보완적으로 확보하는 여진경제에 대외통로 역할을 한 것이다. 때문에 여진의 대외경제 형태로써 약탈과 교역을 함께 살펴봐야 한다.

여진은 적게는 몇 명에서 많게는 수백 명에 이르기까지 명과 조선의 변경을 약탈하였다. 약탈을 주도한 사람은 명이나 조선으로부터 관직을 받은 여진 수령이나 만주 목단강, 흑룡강 등지에 살던 야인여진 추장이었다. 이들은 한편으로는 조공하면서 복종하는 체 하다가 한편으로는 인축의 획득과 복수 등의 이유로 명과 조선을 배반하고 약탈하였는데, 이러한 상황은 수시로 일어났다. 여진인의 약탈로 인한 피해규모는 실로 커서 조선의 한 지역이 공지가 되는 정도였다.

약탈의 주요 대상은 생필품과 인축이었다. 농업사회로 진입하면서 약탈

108) 『仁祖實錄』卷19, 6年 12月 辛卯.

대상은 농우, 사람, 농기구 등으로 점차 변하였고, 누르하치시기에 이르면 인삼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조선 경내에 불법적으로 침탈하여 인삼을 약탈하였다. 이렇게 약탈된 것들은 여진사회에 여러 방면에서 이용되었다. 농우와 농기구는 농업생산의 도구로 이용되었는데 특히 철제 농기구는 일부 무기, 갑옷 등으로 개조하여 군의 전투력을 높이는데 이용되기도 하였다. 약탈된 인구는 여진인의 처첩이 되거나 농경, 곡물 수송, 나무 베기 등 각종 잡역을 담당하였으며, 노예로 이리저리 사고 팔리기도 하였다. 또 쇠환의 도구로써 여진사회에 필요한 물품으로 교환되었기 때문에 재산을 축적하는 한 방법으로써 사람의 약탈이 행해지기도 하였다.

여진이 조선 변경 일대로 남하한 이후, 농경사회로의 진입을 꾀하면서 농업 생산력을 증대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가 나타났는데, 그 중 명·조선으로부터 농우, 철제 농기구, 선진 농업기술을 수입하는 것이 가장 필요한 것이었다. 조공체제라는 동아시아 국제 질서 속에서 여진은 명과 조선에 조공을 하고 이에 반대급부로 상사물을 받았지만, 교역의 기회는 명과 조선에 입조한 여진의 대소 추장에게만 허락되었기 때문에 조공무역을 통해서만 경제적 욕구를 충족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 때문에 명과 조선의 변경을 약탈하던 여진 세력을 회유하고자 명은 개원, 광녕, 무순에 마시를 설치하였고 조선은 경성과 경원에 무역소를 설치하였다. 여진은 명, 조선과의 무역에서 초피, 말, 인삼 등을 수출하고 철기, 농우, 농기구, 소금, 포 등을 수입하였다. 그러나 변경의 안정을 우려한 관리들의 상소로 철기와 농우의 반출이 제한되고 금령이 여러 차례 선포하였으나 그 이후에도 밀무역이나 약탈을 통해 철기와 농우는 여전히 여진지역으로 끊임없이 유출되었다.

여진은 특산물을 교역하면서, 생필품은 물론 농업에 필요한 생산도구와 선진 농업기술까지 얻을 수 있었다. 명과 조선에서 수입한 농우, 농기구 등의 일부는 농업생산에 이용되어 한 단계 발전된 농업 생산단계로의 진입을 촉진하였고, 일부는 무기 제조에 이용되어 군의 전투력 향상에 힘을 보탰다.

또 미곡, 면포, 견직물의 수입은 여진족의 생활수준을 제고시켰고, 여진 각 부락들 사이에서는 피물과 쌀이 교역되는 등 여진 부락 간의 상호 교역도 발생하였다.

여진사회는 이후 더 많은 생산도구를 필요로 하였고 이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초피, 인삼 등 특산물의 생산과 수출이 증가하였다. 게다가 명과 조선으로부터 초피, 인삼 등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이들 품목은 상품의 가치를 갖게 되었다. 때문에 여진사회에서 수렵·어로·채집이라는 기존의 생산방식은 쇠퇴하지 않고 여전히 여진지역에서 경제의 기초가 되었으며 상품경제 발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마시의 발전으로 상품이 다양화 되고 교역할 수 있는 시장이 확대되면서 자연히 교역하는 인원도 늘어 명말에는 여진사회에 대규모로 상인의 무리가 나타났다. 상인의 증가는 여진의 상업 발전을 보여주는 일면이었다.

여진사회 발전에는 다양한 요소가 존재하지만 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은 인구의 확보와 생산력의 제고였다. 여진사회 초기에는 생필품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소규모의 형태로 약탈과 교역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농경사회로의 진입을 추구하면서 수많은 인적, 물적 자원을 필요로 하게 되었고, 이 때문에 약탈과 교역은 점차 대규모의 지속적이고 집단적인 형태를 띠게 되었다. 결국 약탈과 교역의 지속과 확대는 여진사회에 끊임없이 인적, 물적 자원을 공급하여 여진사회를 성장시키는 동력이 되었다.

14~17세기 여진의 성장은 주변국과의 교역을 통해 선진 농업기술과 각종 생산도구, 농우 등을 획득하고 약탈을 통해 사로잡은 사람들을 각종 생산 활동에 종사하게 하는 등의 대외적 경제 토대위에서 만들어졌다. 결국 이러한 경제적 요소를 기반으로 한 재부의 축적이 없었다면 누르하치가 부족을 통합하고 후금을 건국하여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패자로 등장하는 일은 어려웠을지도 모른다.

본고는 여진 경제에서 약탈과 교역이 대외통로의 역할을 했다는 공통점을 바탕으로 두 경제 형태를 각각 살펴보았다. 그러나 몇 가지 사례만을 인

용했을 뿐 유기적으로 연결된 두 경제 형태의 상호보완적 양상을 시기별·항목별로 구체적으로 다루지 못한 한계가 있다. 또한 후금이 건국되는 1616년을 전후한 시기까지 만을 다루고 있어, 누르하치의 부족통합 과정에서 발생한 대규모의 인구 약탈이나 요동진출 이후 약탈, 수렵을 바탕으로 한 군사·사회 조직의 성립이 약탈, 교역, 정복 등 대외 경제 형태와 어떻게 연결되어 여진사회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지 못했다. 이 문제는 여진경제의 특징과 여진사회의 성장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부분임에도 필자의 역량 부족으로 본고에서 다루지 못한 만큼 추후 종합적으로 연구를 진행해서 지금의 부족함을 만회해 나가고자 한다.

## 참고문헌

『萬曆武功錄』, 『滿文老檔』, 『明經世文編』, 『議復開市撫賞疏』, 『遼東志』, 『全遼志』, 『明代遼東檔案』, 『皇明四夷考』, 『明英宗實錄』, 『明太宗實錄』, 『明憲宗實錄』, 『明孝宗實錄』, 『宣祖實錄』, 『成宗實錄』, 『世祖實錄』, 『世宗實錄』, 『燕山君日記』, 『仁祖實錄』, 『中宗實錄』, 『太宗實錄』

金九鎮, 1988, 「13~17C 女眞 社會의 研究 - 金 滅亡 以後 清 建國 以前까지 女眞社會의 組織을 中心으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_\_\_\_\_, 1993, 「明代 女眞社會의 貢勅과 書契」 『宋甲鎬教授退任記念論文集』, 高麗大學 史學會

\_\_\_\_\_, 1994, 「明代 女眞의 中國에 대한 公貿易과 私貿易」 『東洋史學研究』 48, 동양사학회

盧基植, 2001, 「滿洲의 興起와 東아시아 秩序의 變動」 『中國史研究』 16, 중국사학회

朴元燾, 1992, 「宣德年間(1425~1435) 明과 朝鮮間의 建州女眞」 『아세아연구』 35,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徐正欽, 1993, 「明末清初 建州女眞社會의 奴隸經濟」 『安東大學 論文集』 15

이현희, 1982, 「對女眞貿易 - 對野人 交涉政策의 背景」 『韓國史論』 11 - 朝鮮前期의 商工業, 국사편찬위원회

崔學根, 1992. 『國譯蒙文 滿洲實錄』 上·下, 保景文化社, 1992

滕紹箴, 「女眞社會發展評述」 『黑龍江民族叢刊』, 1988年 2期

樂凡, 1997, 「明代女眞族的掠奪經濟初探」 『北方民族』 第4期

\_\_\_\_\_, 1997, 『明代女眞族的多元經濟研究』, 東北師範大學 博士學位論文

林延清, 1983, 「論明代遼東馬市從官市到民市的轉變」 『民族研究』 4期

莫東寅, 「明代女眞族的社會形態」 『滿族史論叢』, 三聯書店, 1979年

文世哲, 1984, 「明代女眞物產輸入幾種」 『黑龍江文物叢刊』 4期

楊紹猷·莫俊卿, 2007, 『中國歷代民族史 - 明代民族史』 社會科學文獻出版社

楊余練, 1980, 「明代後期的遼東馬市與女眞族的興起」 『民族研究』 5期

王冬芳·季明明, 2009, 『女眞 - 滿族建國研究』, 學苑出版社

袁閻琨 외 4인, 2004, 『清代前史』 上下卷, 沈陽出版社

李鴻彬, 1984, 「明代女眞鐵業發展簡述」 『民族研究』 5期

李璜, 2010, 『明代女眞朝貢政策研究』, 中央民族大學 碩士學位論文

張德玉, 1994, 「明代女眞鐵業的發展」 『清前史論叢』, 遼寧人民出版社

蔣秀松, 1984, 「明代女眞的勅貢制」 『民族研究』 第4期

田 靜, 1960, 「明代遼東的馬市貿易」 『史學月刊』 6期

叢佩遠, 2006, 『中國東北史』 卷4, 吉林文史出版社

亨利·賽瑞斯 著, 王苗苗 譯, 2010, 『明蒙關係Ⅲ－貿易關係:馬市(1400~1600)』, 中央民族大學出版社

韓世明, 2006, 『明代女真家庭形態研究』, 中國社會科學出版社

江鳴壽雄, 1999, 『明代清初の女直史研究』, 中國書店

河內良弘, 1971, 「明代東北アジアの貂皮貿易」 『東洋史學研究』 30卷 1號

## ■ Abstract ■

## A Study on the Jurchen Economy between 14th and 17th Century in View of Trading and Plundering

Kim, Yun-Soon

In the 14 Century, the Jurchen who lived in the Manchu(滿洲) had main economic system of hunting and fishing and gathering. However, this system could not be expected to development of constant productive forces and self-sufficiency. For this reason, this thesis aims to focus how they overcame these problems and made their own country in the long run. To be specific, there are many perspectives of constructing Later jin(後金) but this thesis aims to concentrate on how they relieve their limitation. Lastly, this thesis also studies the economy of plundering-trade.

Jurchen requested Joseon and Ming their necessities and get them by using the trade. Also, they plundered the boundary of Ming and Joseon in order to solve their problem. The chief of Jurchen plundered valuable items such as necessary items, human and animals. By using this way, they accumulated their own property and used in their activity. Ming and Joseon stopped their trade and made a war with Jurchen in order to prevent harmful effect from taking place in their boundary but it stimulated Jurchen and did not stop their plundering. Thus, in terms of Ming and Joseon, the plundering of Jurchen was destructive activities but as far as Jurchen is concerned, their activities were one of the key things to accumulate their assets and to earn workforce.

The development of Jurchen's economy was not developed at first because there were not many trades with many countries. However, as the society of Jurchen was changed to the agricultural society, they needed to the method of producing such as farming cattle, workforce, farming tool. As a result, there

were many trades with many countries. Furthermore, as the requesting of Jurchen's specialty such as marten, ginseng was growing there were many types of trade such as tributary trade, horse trade, trade with Joseon in the boundary. In the late Ming, as the horse-market(馬市) was growing, the market was expanded and the types of items were also diversified and there were many people who participated in trade.

The growing of Jurchen was possible. This is because Jurchen could earn workforce by using plunder, they earned the method of producing, they also accumulated their own assets. As a result, these factors influenced the advent of Nurhachi who integrated to many Jurchen's areas and made Later jin country in the long run.